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별 영향요인과 함의†

신유리*, 김정석**, 허준기***

<국문요약>

장애정체감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용되기는 하나, 이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한국 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을 5개의 하위차원(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의식,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식)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적 관계(가족 및 사회적지지, 차별경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정도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팀에서 수집한 제2차 장애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함께 각 차원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확인되고 있다. 사회적지지는 앞서 언급한 모든 하위차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정체감의 각 차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높아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초대졸 이상의 교육은 장애수용 차원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인간으로서의 가치에서는 사회적지지, 중증장애와 사고로 인한 장애가, 장애수용에서는 사회적지지, 교육수준과 미혼, 중증장애가, 시민권리 의식은 사회적지지, 차별경험과 지체, 시각장애, 여성이, 공통근거는 사회적 지지와 연령, 외적장애인물 인식은 사회적 지지와 청각장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차원의 성격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장애정체감 단일 지수로 활용하는 연구에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며, 또한 장애정체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주제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사회적지지, 교육, 장애유형, 차별경험

* 제1저자: 신유리(E-mail: cuchon2011@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현직: 동국대학교 인공과 사회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교신저자: 김정석

학위취득대학: 미시간주립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직: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허준기

학위취득대학: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수료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4129)

논문접수일: 2018년 1월 2일, 논문수정일: 2018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31일

Implication and Effective Factors in the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hin, Yu-ri, Kim, Cheong-seok, Lee, Sun-jeong, Huh, Jun-ki

<Abstract>

While disability identity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studies of the disabled, there has been few empirical research on whether and how it differed among the disabl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easures of disability identity in total and its five components in individual – human value, acceptance of disability, civil rights, common ground, and external barrier. The factors considered in the study include social relations(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ocial suppor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sex, age, education etc.) and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degree, cause, type and length of the disability). The analysis, based on the 2nd wave survey on the disabled persons conducted by SSK research team, revealed that there were common variables affecting five components in a similar way. This was the case with social support. Thus, it was reasonable to view social support as a promoter of disability identity. In the meanwhile, there were found variables with different influences according to the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Education level has affected on disability acceptance of all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For human value and acceptance of disability, effective were disability caused by accident and heavy disability; for civil rights and external barrier,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physical disability, visible and hearing impairment; for common ground, age. The findings on variation in significant variables across the five components of disability identity suggest that the use of disability identity as a single measure require detailed caution in research plan. In addition, they provide a ground for more strategic approach to enhance disability identity in practice.

[Keywords] *composition of disability identity, social support, education, type of disabil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 서론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의 방향은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자립, 권리보장 등을 지향한다. 이에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논의에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화되어야 점을 강조한다(이익섭·신은경, 2006; 강석임, 2014).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장애관련 연구에서 당사자들의 고유한 장애경험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장애정체감에 주목한다. 장애정체감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개인인식과 사회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섞여 형성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삶에 대해 그 영향력이 크다(조현진·박재국, 2013; Thomas, 1999). 특히 긍정적 정체성은 개인의 삶의 적응을 유도하며 일상적 차별과 학대, 사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잘 다뤄 개인의 역량 등을 강화시킨다(Anjali and Marianne, 2017).

지금까지 수행된 장애정체감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정체감에 대한 개념화 연구를 비롯하여 측정도구개발(이익섭·신은경, 2006; Glickman and Carey, 1993; Putnam, 2001; Lisa and McWhite, 2001), 장애청소년, 대학생의 적응과의 관계성 연구(조현진·박재국, 2013; 이웅 외, 2011; 문주영 외, 2014), 지체, 청각장애인 등을 비롯한 특정 소수집단의 정체감 연구(이익섭 외, 2007; 이진향·서미경, 2008; Timm, 2002; Thomas, 1999), 장애정체감과 사회통합, 참여와의 관계 연구(신은경·최정아, 2007; 유동철 외, 2016; 강석임, 2014), 장애정체감과 건강간의 연관성 연구(이익섭 외, 2007; Kelly and Millward, 2004; Anjali and Marianne, 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나 적응,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정체감의 간접적 역할을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으며, 장애정체감 개발 및 증진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특정 장애유형이나 소수집단에 국한되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나 적응, 건강상태에 미치는 장애정체감의 중재효과를 밝히는 접근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장애정체감을 단일 지수로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이익섭·신은경, 2006; 이익섭·홍세희·신은경, 2007) 각 요인에 따른 하위차원별 영향력차이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장애정체감은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통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Calvin, 2006; Anjali and Marianne, 2017).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장애정체감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보는 것보다 하위차원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장애정체감의 다양성에 관한 지식구축과 차별적인 실천전략 마련에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Putnam, 2001; Shur, 1998).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 기존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지만(이익섭 외, 2007; Putnam, 2001; Shur, 1998),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며 더구나 기존 연구에서는 차별과 사회적 관계 등 장애학이나 복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환경요인을 배제했다.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는 장애차별로 인한 상실이나 박탈감을 완화하고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대처능력, 권리인식이나 옹호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다(유동철 외, 2016; 강석임, 2014; 박현숙 외, 2013; Glickman and Carey, 1993). 또, 차별은 장애인의 자아와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송진영 외, 2013; 이지수, 2011;

Kelly and Millward, 2004). 이처럼 장애정체감은 개인적 성향인 동시에 환경수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즉, 장애정체감은 개인적 특성 및 환경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로 이들 요인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특성이 장애정체감의 각 하위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장애정체감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데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실천전략과 임상적 개입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 생성에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정체감의 개념적 정의 및 특성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 형성되는 자기인식과 스스로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와 행동의 의미가 축적되어 형성된 개념이다(신은경·최정아, 2007; Anjali and Marianne, 2016). 일반적인 자아정체감과 달리 장애정체감은 손상효과로 인한 영향력을 받는다. 자아는 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신체손상으로 인해 느끼는 것은 장애인의 정신과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Charmz, 1995). 장애정체감은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그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신은경·최정아, 2007). 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맥락적 개념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따라 분열되고 재통합되는 유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장애정체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 될 수 있다. Hahn(2003)은 장애정체감의 구성요소로 장애 자부심, 시민권, 장애에 대한 사회적 태도, 환경장벽, 차별신념을 들었다. Dunn과 Burcaw(2013)는 구성요소로 긍정적 자아감의 소유와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친밀감을 갖는 것, 곧 연대감이나 소속감까지 아울러었다. Anjali와 Marianne(2017)는 장애에 대한 긍정성, 공감대, 자기 가치감, 자부심, 차별, 개인적 의미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처럼 장애학자들마다 장애정체감의 개념이나 구성요소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애정체감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통합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익섭 외(2007)은 Putnam(2001)의 장애정체감의 10가지 요소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주관적 측면을 장애수용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객관적 측면을 공통근거, 시민적 권리, 외적 장애물에 대한 인식으로 5가지 하위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척도개발을 하였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을 구성하는 개념은 자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 명명하고 있다.

이 같이 장애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나 장애특성, 개인적 요인에 따라 재구성된다고 했다(Charmz, 1995). 즉,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개인인식과 사회문화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장애정체감의 수준이나 각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이익섭 외, 2007; Hahn, 2003).

2.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영향요인

1) 장애특성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특성으로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원인이 있다. 장애인은 신체 손상 정도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자신의 장애를 다르게 인식하고 이해한다고 알려져 있다(Calvin, 2006; Shur, 1998). 장애정체감은 일반 정체감과 달리, 손상의 영향력의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그들의 장애경험과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익섭 외(2007)에 의하면 장애정체감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에 따라 자신의 장애에 대해 다르게 인지한다고 했다(Charmaz, 1995).

Putnam(2001)의 연구에서는 손상 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에 비해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또 '장애수용', '자부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수준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장애유형과 장애정체감 하위차원과 영향력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지만 시정각장애인 집단 내의 고유한 문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으로(Calvin, 2006), 장애유형이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유추된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들 요인이 각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기존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연령 관련 결과를 살펴보면 이익섭 외(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utnam(2001)의 연구에서는 64세 미만 성인 경우에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장애수용'에서 점수가 높았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Hahn(2003)은 이중차별을 겪는 장애여성의 정체감과 백인남성의 장애정체감과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Hahn(2003)은 이중차별을 겪는 장애인의 장애정체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장애여성이 느끼는 차별은 장애와 젠더라는 이중차별로 인해 매우 고유하고 다르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의 정체감과 구별되고 분리된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Putnam(2001)의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류문화에 속할수록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 중 '인간에 대한 가치'에서 점수가 높았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인 경우,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공통근거'에 점수가 높았다(이익섭 외, 2007, 재인용).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Putnam(2001)에서는 미혼인 경우에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반면, Shur(1998)는 기혼인 경우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가 장애정체감 각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3) 차별경험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차별경험을 들 수 있다. 우선, 차별은 당사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장애인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이질감, 배타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차별경험을 많이 받을수록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자아정체감이 낮아진다고 했다(이지수, 2011; 서미경·김정남, 2004).

반면,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역압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된다.

Shur(1998)은 장기간 직장과 공공장소에서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 장애옹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 응집력 있는 장애정체감은 일상적 차별과 학대, 사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잘 다뤄 개인의 장애와 삶의 적응을 돕는 것이다(Anjali and Marianne, 2017). 즉, 장애정체감은 사회적 차별로부터 오는 분노나 좌절감 등을 그들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적 능력에 의해 상당히 조절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을 겪음으로써 그 불리함에 대한 저항인식이나 장애옹호 활동에 적극참여하게 되고 권리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 관계측면에서 Shakespeare(1996)는 장애인들 간의 상호지지와 상호 공감의 힘은 긍정적인 장애정체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의 자원으로 장애차별로 유발되는 자기부정, 낙인, 우울 등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것이다(송진영 외, 2013; Brown et al., 2006). 장애인구층은 타자와의 상호작용과 지지로부터 긍정적인 장애정체감이 증진된다고 했다(박자경, 2009; Putnam, 2001, 2005). 특

히, 신체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을 지지하는 사회적 관계와 그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장애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개발하며 긍정적인 장애정체감이 강화된다(Calvin, 2006; Williams and Port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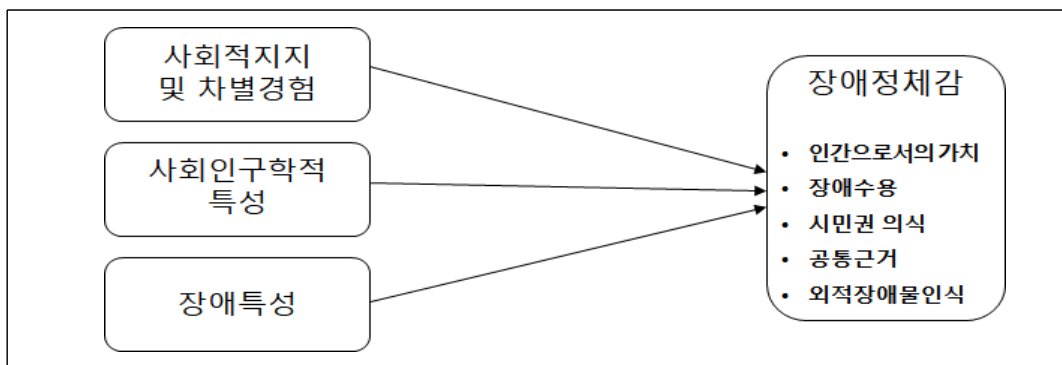
지지집단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활동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문제에 관심이 높았으며(Shur, 1998), 장애인집단이나 동료집단과의 유대를 통해 이들의 분노와 소외감이 낮아졌다(김영대·나동석, 2016). 즉, 관계맺음 정도에 따라 장애정체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획득되는 자존감이나 긍정적 장애정체감, 긍정적 자아감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III.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지지(가족 지지, 주변지지), 차별경험(보험제도차별, 의료기관차별, 정보통신 차별, 지역사회생활차별, 일상생활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

<그림 1> 연구모형



원인, 장애정도)이고 종속변수는 장애정체감(인간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식)이다. 즉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SS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2016년 장애인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장애인들의 특성과 생활환경 및 다양한 의식조사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2015년 6-7월에 제1회, 2016년 7월에 제2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680명 정도의 장애인이며, 여기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는 30-40명의 코디네이트(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650사례가 조사 완료되었다.

본 조사는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승인(DUIRB-20161219-021)을 받아 실시하였다. 650 사례 중 40대부터 60대까지의 장애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60사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및 장애인정체감 하위차원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간의 관계 및 각 하위차원과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사회적지지, 사회인구학적특성, 장애특성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분석모형 및 변수

1) 종속변수: 장애정체감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장애정체감은 이익섭·신은경(2006)¹⁾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했다. 이 척도는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의식’,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식’의 5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정체감은 총 23개 문항이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범위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체감의 각 하위차원을 구분하고, 장애정체감과 각 영역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척도를 개발한 이익섭·신은경(2006)은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3개 문항의 장애정체감의 신뢰도는

-
- 1) 이익섭·신은경(2006)의 장애정체감 척도의 5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신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며, 한 사람의 가치는 신체적 능력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 장애수용: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태도 및 인식
 - 공통근거: 장애경험은 특정 개인만이 느끼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태에 있는 대부분 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믿음 즉, 경험의 공유를 지칭
 - 시민적 권리: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장벽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대처 반응 및 태도
 -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 장애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과 이러한 장애물은 제거 될 수 있다는 인식

Cronbach's α =.867로 나타났다. 지체뇌병변장애와 시각,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장애정체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8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5개 하위차원 중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문항이다. 관련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을 사귀는데, 자신이 가진 신체적 결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장애와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장애인의 결혼생활이 비장애인의 결혼생활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만큼 일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사회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더 많은 장점들도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나는 내 장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장애인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등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8이었다.

장애수용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를 가진 자신에 대한 수용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 '장애로 인해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등이다. 장애수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73이었다.

시민적 권리의식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대처에 관한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장애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등이다. 시민권리의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0이었다.

공통근거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 간의 애착이나 친근감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이 다른 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매우 강한 애착을 느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친밀감이 느껴진다' 등이다. 공통근거의 신뢰도 *Cronbach's α* =.798이었다.

외적 장애물에 관한 인식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과 거부감에 관련된 문항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결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장애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장애인들은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일 때 거부감이 든다' 등이다. 외적장애물 인식은 신뢰도 *Cronbach's α* =.777이었다. 장애정체감을 포함한 5개 하위차원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가족지지와 주변지지의 두

가지로 접근하였으며, 각 세부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지지 부분은 4개 문항으로 ‘나의 가족은 진정으로 나를 도우려 애쓴다’, ‘나의 가족으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 ‘내 문제에 대하여 나는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다’, ‘가족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도록 가까이 도와줄 것이다’ 로 구성된다. 주변적 지지는 ‘위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친구나 주변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친구나 주변사람이 있다’, ‘내 문제에 대하여 친구나 주변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는 *Cronbach's α*=.929이었다.

(2) 장애차별경험

장애차별경험은 차별을 경험한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1 ‘전혀 없음’, 2 ‘조금 있음’ 3 ‘많음’ 4 ‘매우 많음’). 이러한 차별경험은 5개 영역을 포함하였다: 보험제도(계약)차별, 의료기관차별, 정보통신이용(방송 포함)차별, 지역사회생활차별(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일상생활차별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807이었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혼인상태 등이 있다. 성별은 남녀, 연령은 40대 이상²⁾, 혼인상태는 미혼과 사별,

2) 본 패널은 장애정체감과 변인들(정치적 인식, 역량 등)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장애와 노화간의 역동적 관계성, 변화추이 등을 파악하고자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본 연구대상의 연령을 40대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이혼, 별거, 유배우자로 분류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와 전문대 졸업이상인 초대졸로 구분하였다.

(4) 장애특성

장애특성은 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정도 등이 있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로 구분하였다. 장애원인은 후천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로 구분하였다. 장애 중증여부는 현재 장애등급(복지카드상의 등급)을 기준으로 1급~3급을 중증으로 구분하였으며, 4급~6급을 경증으로 구분하였다.

3) 변수정의 및 분포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장애정체감과 5개 하위차원인데, 장애인 정체감은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값은 최소 23점에서 92점이다. 장애인정체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분석대상의 장애정체감 평균은 47.2점으로 나타났다.

각 5개 하위차원의 평균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총 9개 문항이며, 측정값은 최소 9점에서 최대 36점, 분석대상의 평균은 17.3점이었다. ‘장애수용’은 3개 문항으로, 측정값은 최소 3점에서 최대 12점, 분석대상의 평균은 6.3점이었다. ‘시민권리의식’는 4개 문항으로 측정값은 최소 4점에서 최대 16점이며, 분석대상의 평균은 7.9점, ‘공통근거’는 3개 문항으로 5.6점, ‘외적장애물인식’은 4개 문항으로 9.0점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차원 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외적장애물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수용, 시민적 권리의식, 인간으로서의 가치, 공통근거 순으로 나타

61.6%(345명), 뇌병변장애인 2.1%(12명), 시각장애인 21.4%(120명), 청각장애인 14.9%(83명)로 지체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원에 있어서는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45.2%, 사고로 인한 장애가 27.9%로 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는 장애 1급~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는 71.1%, 경증이 28.9%로 중증장애인이 경증에 보다 42.2%p 높았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이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5개 하위차원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 <표 2>와 같다.

하위 차원간의 상관관계는 p<.01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r=.761$ ($p<.0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외적장애물인식’이 $r=.545$ ($p<.01$), ‘시민권리의식’과 ‘장애수용’이 $r=.530$ ($p<.01$), ‘시민권리의식’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r=.517$ ($p<.01$), ‘외적장애물인식’과 ‘시민권리의식’이 $r=.494$ ($p<.01$), ‘공통근거’와 ‘시민권리의식’이 $r=.480$ ($p<.01$), ‘공통근거’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r=.436$ ($p<.01$), ‘외적장애물인식’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r=.421$ ($p<.01$), ‘공통근거’와 ‘장애수용’이 $r=.420$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공통근거와 장애수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각 하위차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r=.754$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두 차원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동일한 개념 범주로 취급할 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2>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 간 상관관계(n=560)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의식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인간으로서의 가치	1				
장애수용	.761**	1			
시민권리 의식	.517**	.530**	1		
공통근거	.436**	.420**	.480**	1	
외적 장애물인식	.421**	.500**	.494**	.545**	1

* $p<.05$, ** $p<.01$,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

지만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와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과 요인간의 관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장애정체감과 그 하위차원,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표 3>

참고), 5개 하위차원과 요인들 간의 관계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 정체감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사회적지지 ($r=.403(p<.01)$), 학력 ($r=.186(p<.01)$), 지체장애($r=.122(p<.01)$), 사고로 인한 장애($r=.100(p<.01)$)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청각장애($r=-.159(p<.01)$)와 중증장애($r=-.090(p<.05)$)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사회적지지 ($r=.314(p<.01)$), 학력($r=.155(p<.01)$), 지체장애인($r=.091(p<.05)$), 사고로 인한 장애($r=.099(p<.01)$)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중증장애인($r=-.155(p<.01)$)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장애수용은 사회적지지($r=.357(p<.01)$), 학력($r=.188(p<.01)$)과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연령($r=-.089(p<.05)$), 청각장애인 ($r=-.110(p<.05)$), 중증장애($r=1.121(p<.01)$)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시민권리 의식은 사회적지지 ($r=.345(p<.01)$), 학력($r=.178(p<.01)$)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반면, 성별 ($r=-.138(p<.01)$), 청각장애인 ($r=-.095(p<.05)$)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공통근거는 사회적지지($r=.303(p<.01)$), 연령 ($r=.092(p<.05)$), 지체장애($r=.129(p<.01)$), 사고로 인한 장애($r=.101(p<.05)$)와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청각장애($r=-.159(p<.01)$)와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장애물인식은 사회적지지($r=.291(p<.01)$), 학력 ($r=.1333(p<.01)$), 지체장애 ($r=.170(p<.01)$)와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표 3>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과 영향요인간의 이원관계 : 상관계수 (n=560)

		장애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의식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사회적지지		.403**	.314**	.357**	.345**	.303**	.291**
차별경험		.036	-.018	.023	.106*	.008	.059
연령		-.058	-.082	-.089*	-.068	.092*	-.023
성별 (기준 : 여성)		-.067	-.035	-.017	-.138**	-.054	-.015
학력 (기준 : 초대졸)		.186**	.155**	.188**	.178**	.070	.133**
혼인 상태	미혼	-.037	-.034	-.050	-.033	-.056	.023
	사별, 이혼, 별거	-.082	-.086	-.084	-.090*	-.005	-.024
장애 유형	지체	.122**	.091*	.080	.039	.129**	.170**
	뇌병변	.020	.010	-.015	.034	.047	.000
	시각	-.001	-.045	.015	.058	-.017	.026
	청각	-.159**	-.074	-.110*	-.095*	-.159**	-.267**
장애 원인	질환	-.013	-.019	.016	.016	-.046	-.013
	사고	.100*	.099*	.087	.040	.101*	.061
중증장애		-.090*	-.155**	-.121**	.048	-.043	-.026

*p <.05, **p<.01,

청각장애($r=.267$ ($p<.01$))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장애정체감을 비롯한 5개 하위차원과 영향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는 장애정체감의 모든 하위차원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장애정체

감이 가장 강한 관계를 보였고, 외적 장애물인식이 가장 약한 관계를 보였다.

차별인식과 성별은 시민적 권리 의식을 제외한 모든 차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시민적 권리의식 간에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민권리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장애수용과 공통근거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과 장애수용 간의 관계는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공통근거와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수용은 낮은 연령과, 공통근거는 높은 연령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학력은 공통근거를 제외한 모든 차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별, 이혼, 별거 등의 혼인상태와 시민권리의식 간의 부(-)적 관계를 보였다.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식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 뇌병변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장애정체감을 비롯해 5개의 하위차원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장애원인에 있어서 사고가 장애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공통근거 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며, 중증장애는 장애정체감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간의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차원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장애인정체감 하위차원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5개 차원 모두가 상이한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관계의 정도나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과관계의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장애정체감 하위차원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따른 영향력을 미치는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독립변수로 사회적지지와 차별경험, 사회인구학적특성, 장애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4> 참조). <표4>은 장애정체감을 비롯하여 각 5개 하위차원(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권리 의식, 공통근거, 외적장애물인식)과 독립변수 간의 각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장애정체감과 독립변수 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0.6%이며, $F=8.805$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b=.649, p<.001$)와 차별경험($b=.139, p<.0.1$), 학력($b=2.549, p<.05$), 혼인상태에서 미혼($b=-2,150, p<.05$)이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고등학생보다 초대졸 이상일 때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는 성향을 보였다. 혼인상태에서는 자아정체감에 부(-)적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미혼이라는 요인은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독립변수 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1%이며, $F=5.73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사회적지지($b=.224, p<.001$)와 혼인상태에서 미혼($b=-.965, p<.1$), 사고로 인한 장애

(b=1.219, p<.05), 중증장애(b=-1.355,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사고로 인해 인한 장애일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부적 관계를 보인 혼인상태에서 미혼과 중증장애 요인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과 독립변수 간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0%이며, F=7.284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장애수용은 사회적지(b=.079, p<.001)와 연령(b=-.013, p<.1), 학력(b=.325, p<.05), 미혼(b=-.370, p<.05), 질환으로 인한 장애(b=.282, p<.1), 사고로 인한 장애(b=.481, p<.01), 중증장애(b=-.309,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초대졸 이상, 사고로 인해 장애일 때 장애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일 때, 연령이 낮을수록, 중증장애라는 요인은 장애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리의식’과 독립변수 간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5.2%, F=6.430,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시민권리의식’은 사회적지지(b=.131, p<.001)와 차별경험(b=.047, p<.05), 학력(b=.459, p<.1), 지체장애(b=1.601, p<.05), 뇌병변장애(b=1.500, p<.05), 중증장애(b=.454,

<표 4>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의 회귀분석 결과(n=560)

변수명	장애정체감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시민 권리의식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b (p-value)	β	b (p-value)	β	b (p-value)	β	b (p-value)	β	b (p-value)	β	b (p-value)	β		
상수	24.240 ***		12.526 ***		4.025 ***		2.695 *		1.725 *		5.164 ***			
사회적지지	.649 ***	.375	.224 ***	.280	.079 ***	.306	.131 ***	.292	.087 ***	.283	.086 ***	.241		
차별경험	.139 †	.082	.018	.022	.012	.047	.047 *	.107	.020	.066	.039 *	.111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연령	-.017	-.016	-.036	-.073	-.013 †	-.085	-.011	-.039	.026 ***	.138	.007	.030	
	성별	-.743	-.035	-.049	-.005	.038	.012	-.502	-.090	-.152	-.040	.076	.017	
	학력	2.048 †	.091	.793	.075	.325 *	.096	.459 †	.077	.200	.050	.280	.060	
	혼인 상태	미혼 사별*	-2.150 * -.090	-.092 -.003	-.965 † -.510	-.088 -.038	-.370 * -.124	-.106 -.030	-.468 -.156	-.077 -.021	-.171 .094	-.041 .019	-.036 .290	-.007 .050
장애 특성	지체장애	3.557	.164	.823	.081	.534	.164	1.601 *	.281	.281	.073	.209	.046	
	뇌병변장애	3.631	.034	-.497	-.011	-.235	-.016	1.500 *	.062	.708	.043	-.845	-.044	
	시각장애	2.475	.096	.241	.020	.530	.135	1.621	.236	-.019	-.004	-.089	-.016	
	청각장애	.998	.034	1.005	.073	.440	.100	1.137	.148	-.389	-.075	-1.295 *	-.214	
	장애 원인	질환 사고	.701 2.418 †	.033 .101	.477 1.219 *	.047 .109	.282 † .481 **	.088 .135	.277 .289	.049 .046	-.125 .189	-.033 .045	.069 .091	.016 .018
	중증장애	-.948	-.040	-1.355 ***	-.122	-.309 *	-.087	.454 †	.073	.131	.031	.165	.034	
	R^2	.206		.141		.170		.152		.130		.143		
Adj R^2	.183		.117		.147		.129		.105		.119			
F	8.805***		5.732***		7.284***		6.430***		5.286***		5.932***			

† p<.1, *p<.05, **p<.01, ***p<.001.

주: * 사별, 이혼, 별거

$p < .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장애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지체뇌병변 장애일 때 시민권리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리의식’에는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사회적지지가 차별경험, 지체뇌병변 장애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공통근거’와 독립변수 간에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0%, $F=5.286$,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b=.087$, $p < .001$)와 연령($b=.026$, $p < .01$)이 높을수록 공통근거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근거 차원’은 사회적지지와 연령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영향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장애물인식’과 독립변수 간에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3%이며, $F=5.932$,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b=.086$, $p < .001$)와 차별경험($b=.039$, $p < .05$), 청각장애($b=-1.295$, $p < .05$)가 ‘외적 장애물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지와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외적 장애물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청각장애가 외부 장애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장애정체감의 5개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통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차별적인 요인으로 교육수준, 중증장애, 사고

로 인한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연령, 차별경험이 나타났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장애정체감의 모든 하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인 ‘시민권리의식’, ‘인간으로서의 가치’, ‘장애수용’, ‘공통근거’, ‘외적 장애물인식’ 수준이 모두 높았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Zola, 1993; Putnam, 2001).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며 관계맺음으로 장애로 인해 겪는 소외감과 자괴감을 낮추고 부정적인 자아감을 해소시켜 자존감을 갖도록 한다고 했다(Shakespeare, 1996).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 또,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상호작용은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장애수용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친구나 동료들 간의 집단적 지지는 당사자들에게 연대의식과 소속감 등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lvin, 2006).

둘째,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시민권리의식’과 ‘외적장애물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차별로 인한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된다(김영대·나동석, 2016; Shur, 1998).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4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차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내면화하는 것보다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과 정치적 관심이 젊은 연령대보다 더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받을수록 정치적 옹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Shur, 1998) 그 결과, 권리인식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수록 '공통근거'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장애문제가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다는 공감대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사회적 경험과 상호작용이 축적됨에 따라 장애가 본인만의 불행이고 결핍이라는 편협한 인식이 감소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장애정체감과 연령간의 관계규명은 연구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익섭 외(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2001; Lezonni and Israel, 2000). 이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연령이 장애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위차원 중 '공통근거'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의 연륜이 있는 집단으로 장애에 대한 공통된 경험이라는 믿음이나 인식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장애정체감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보다 밀도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하위차원 중 '시민적 권리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대 이후 장애인 권리 운동의 흐름이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나 참여가 배제되어 여성장애인의 권리인식이 낮은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미혼 경우가 기혼에 비해 장애정체감

수준이 낮고 하위차원 중 '장애수용'에 점수가 낮았다. Putnam(2001)에서는 미혼인 경우에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반면, Shur(1998)는 기혼인 경우 '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미혼의 경우 기혼에 비해 상호작용적 관계형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로 인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수준 역시 낮아 장애정체감 및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위차원 중 '장애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연구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Putnam(200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 중 '인간에 대한 가치'에서 점수가 높았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경우, 장애정체감 하위차원 중 '공통근거'에 점수가 높았다. 반면 이익섭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정체감 전체를 증진시키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요인은 기존 연구에 따라 관계성을 갖는 각 하위차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호 유사한 맥락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육은 장애인으로서의 열등감을 사회화하고 이를 내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여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을 높이며, 또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에 장애인의 교육체계에 대한 제도적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정체감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차원별 영향력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의 경우는 '시민권리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표집이 자립생활기관이나 장애인단

체에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표본에 편중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기존 연구로부터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장애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영대·나동석, 2016; 전지혜, 2010).

또한 2000년대 이후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자립생활이 확대되고 옹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자립과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확대가 지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의식향상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외적장애물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들은 비가시적인 장애를 가진 이유로 평소 본인 스스로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장애를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장벽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 곧, ‘외적장애물인식’ 역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청각장애인들만의 독특한 성향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결과라 여겨진다. 실제 청각장애인들은 농문화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자신들만의 유대가 매우 깊고 수화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소통하는 공동체 인식을 갖고 있어(윤나바·이소현, 2007), 장애를 만드는 사회적 물리적 장벽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일 경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후천적 사고로 인한 경우가 선천적 장애보다 장애수용정도가 낮고 또한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그 수준이 낮다는 기존 연구결과(신은경·최정아, 2007)와 상반된다. 이는 사고로 인한 후천

성 장애를 입었지만 사회참여나 옹호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본 연구의 조사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수준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인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중증장애인 경우 하위차원 중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상정도가 높을수록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정도가 낮다는 기존연구결과와 일치된다(Putnam, 2001). 손상정도에 차이가 있어 그에 가해지는 편견이나 차별이 달라 장애정체감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중증장애인 경우 장애수용이나 장애정체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이익섭 외, 2007).

다음으로는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 본다.

첫째, 본 연구로부터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함께 각 차원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확인되었다. 이는 하위차원의 성격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장애정체감 단일지수로 활용하는 연구에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되며 장애정체감 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정체감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 개념으로 영향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이익섭 외, 2007; Hahn, 2003; Putnam, 2001; Anjali and Marianne, 2017).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장애정체감의 다양성 논의를 위해 기초 작업일 것이다.

반면, 장애억압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공통 경험과 공통된 정체성도 분명 존재한다. 장애정체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공통적이고 공유된 그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정체감은 장애인 집단

의 결속력과 주체적 시민의식, 장애인의 권익 운동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이 적극 필요하다. 향후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이 지닌 고유한 의미와 특성, 그리고 공통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증장애 경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장애수용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전략과 관련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손상정도에 따라 그에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물리적 장벽이 다르다고 했다(이광원 외, 2015; Charmaz, 1995). 즉 손상정도가 높을수록 그에 가해지는 편견과 사회적 불리가 상당하여 중증장애인 경우 자기 가치감이나 장애수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정책과 사회서비스에서 중증장애를 배려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심리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장애정체감을 측정하는 차별적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장애정체감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청각장애와 같은 장애정체감의 차별성을 간과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차별과 그들의 정체성은 매우 고유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정체감과 구별되어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상적인 장애차별로부터 오는 분노, 좌절감 등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권리의식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지역의 복지관이나 기관, 단체에서 당사자 중심의 자조모임의 활성화하고 자기옹호, 사회참여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영대와 나동석(2016)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사회

억압에 대항하여 자조활동을 통해 변화되고 그러면서 권리인식과 정치적 옹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자조활동이나 활동참여는 장애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오는 자괴감이나 우울 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당사자들의 시민적 권리의식과 사회적 인식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 연구로부터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확인됨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형성 및 지지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은 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 필요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를 예방하고 해소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망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고 공동체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참여 수준을 증진시키는 자원이다.

여섯째, 장애여성의 시민적 권리의식을 높이는 개입이 요구된다. 2000년대 장애인의 고용, 옹호활동, 참여 등도 남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와 상대적으로 장애여성의 권리나 욕구 등은 배제되어 왔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장애여성의 사회활동, 옹호활동 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공통 근거의 점수가 높았다. 실제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연령별로 느끼는 장애정체감 수준은 다르다고 보고된다(Putnam, 2001; 이익섭 외 2007). 특히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한 확대되는 추세임으로 장애인과 노인 복지 분야에서 고령장애인구층의 장애정체감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아동청

년기, 중고령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연령별 장애정체감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 및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한다면, 먼저, 연구대상이 되는 경증, 중증장애인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균형 있게 추출하기 어려워 대상이 자립생활기관이나 장애인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중증지체장애인에 편중된 임의표집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둘째,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탐색적 차원의 국내연구로 다양한 요인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준비하고 파악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셋째, 주요 환경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참여, 물리적 접근성에 따라서도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면,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을 통하여 적용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이고, 개인특성과 장애유형, 사회참여, 접근성 등에 따라 장애정체감 하위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향후 장애정체감의 하위차원이나 구성요소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 장애정체감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학문적 임상적 논의의 풍부한 기초자료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석임. 2014.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4: 61-82.
- 김영대·나동석. 2016. “재가중증장애인의 장애정체감과 자립생활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2: 115-139.
- 문주영·손승현·이예다나. 2014. “사회적 지지와 장애대학생 학업적응의 관계: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27(3): 53-75.
- 박자경. 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장애와 고용』 13(4): 1-27.
- 박현숙·손민정·송진영. 2013.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장애수용의 매개효과 및 대인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1): 55-76.
- 이광원·정중화·장순옥. 2015.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9: 29-48.
- 이익섭·김성연·최지선. 2007. “지체장애인의 장애 정체감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1(3): 56-76.
- 이익섭·신은경. 2006. “장애 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5: 111-141.
- 이익섭·홍세희·신은경. 2007. “장애정체감 척도의 Rach 모형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9(4): 273-296.
- 이용·이주희·이한나. 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특수교육』 10(3): 245-268.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 이진향·서미경. 2008.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 및 차별지각 정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4(1): 135-156.
- 유동철·김동기·김경미·신유리. 2016.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1: 73-92.
- 윤나비·이소현. 2007. “청각장애 청소년의 멘토링 경험과 자아정체감 관계분석-청각장애학교 고등부 학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6(1): 71-96.
- 신은경·최정아.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척수손상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요인: 우울, 장애정체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1(1): 1-29.
- 송진영·안귀일·문재우. 2013. “장애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와 대인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직업재활연구』 23(2): 5-23.
- 전지혜. 2010. “장애 정체감으로서의 장애 자부심, 그리고 장애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한국장애인복지학』 15: 57-76.
- 조현진·박재국. 2013. “장애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특수교육학연구』 47(4): 227-249.

Non-Korean References

- Anjali, J., F., and Marianne, P. Z. 2017. "Disabil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Voices from the ADA-generation".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http://dx.doi.org/10.1016/j.dhjo.2016.12.31>.
- Brown, G, K., Wall, k. A., and Nicassio, P. M. 2006.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rheumatoid arthritis: A one-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4): 1164-1181.
- Charmaz, N. 1995. "The body, identity, and self: Adapting to impair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 124-132.
- Dunn D., and Burcaw, S. 2013. "Disability Identity: exploring narrative accounts of disability". *Rehabil Psychol*. 58(2): 148-157.
- Galvin, R., D. 2005. "Researching the disabled identity: contextualizing the identity transformation which accompany the onset of impairment".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27(2): 393-413.
- Hahn. H. D. 2004. "Disability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cure in a sample of disabled activis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4): 453-467.
- Lezonna, L., and Israel, B., 2000. "Disability: the reluctant identity. Review Essay".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s*, 1157-1167.
- Lisa, F., and McWhite, J. 2001. "The deaf identity development scale: A revis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55-368.
- Nosek, M. A., Hhghes, R. B., Swedlund, N., Taylor, H. B., and Swank, P. 2003. Self-esteem and woman with disabilities. *Soc Sci Med*, 56(8): 1737-1747.
- Krahn, G. L. 1993. "Conceptualizing social support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needs". *Family Process*, 32: 235-248.
- Kelly M., and Millward L. 2004, Identity and Illness, In kelleher D, Leavey G, eds. Identity and Health. New York, NY: Routledge.(1-18)
- Glickman, N. S., and Carey, J. C. 1993. "Measuring deaf cultural identiti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38: 275-282.
- Putnam, M. M. 2001. Individual disability identity: A beginning exploration into its nature, structure, and relevance for political coalition build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Putnam, M. 2005. "Conceptualizing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6(3): 188-198.
- Simpson, G. and Price, V., 2009, "From Inclusion to Exclusion: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of valuing people".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 180-186.

- Reinhardt, J. P., 2001.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support received and provided on adaptation to chronic visual impairment". *Applied Development Science*, 5(2): 76-85.
- Shakespeare, T. 1996. Disability, identity and difference. The Disability Press: Leeds, 94-113.
- Shur, L. 1998. "Disability and the Psychology of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9(2): 3-31.
- Thomas, C. 1999. Female Forme: Experiencing and Understanding Disability: Open University Press.
- Timm, R. 2002. Disability-Specific Hassles: the Effects of Oppression on People with Disab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 Zola, I. K. 1993. "Self, Identity and the Naming Question: Reflections on the Language of Disabil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2): 167-173.
- Williams, V. and Porter, S. 2017. "The Meaning of Choice and Control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are Planning their Social Care and Support".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30: 97-108.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 Hyun-jin and Park, Jae-kook. 2013. "Adjustment to Colleg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7(4): 227-249.
- Jeon, Ji-hye. 2011. "Exploring Disability Pride as Disability Identity and the Possibility of Disability Cultur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5: 57-76.
- Kang, Seok-im. 2014. "Impact of Social Interaction on Community Integration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ith Priority Given to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4: 61-82.
- Kim, Yeong-dae and Ra, Dong-seok. 2016.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Identity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Severe Disabled",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2: 115-139.
- Lee, Ick-seop and Shin, Eun-kyoung. 2006. "A Study on the Disability Identity Scale(DIS)- For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 111-141.
- Lee, Ick-seop, Hong, Se-Hee and Shin, Eun-kyoung. 2007. "Rasch Rating Scale Modeling of the Disability Identity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4): 273-296.
- Lee, Ick-seop, Kim, Seong-yeon and Choi, Ji-Sun. 2007. "A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Affecting Disability Identity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1(3): 56-76.
- Lee, Jee-soo. 2011.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elf Stigma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27(1): 277-299.
- Lee, Jin-hyang and Seo, Mi-kyoung. 2008.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among the Mentally Il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24(1): 135-156.
- Lee, Kwang-won, Jeong, Jong-Hwa and Jang, Soon-Wook. 2015.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Identity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9: 29-48.
- Lee, Woong, Lee, Ju-hee and Lee, Han-na.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Identit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3): 245-268.
- Moon, Ju-yeong, Son, Seung-hyun and Lee, Ye-dana.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sability Identity in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College Students with

- Disabilitie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7(3): 53-75.
- Park, Hyun-sook, Son, Min-jeong and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upport”, *Disability and Employment*, 23(1): 55-76.
- Park, Ja-kyung and Um, Myung-yong. 2009.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3(4): 1-23.
- Shin, Eun-kyoung and Choi, Jung-ah. 2007. “Study on Factors Affecting on the Spinal Cord Injuries’ Social Integratio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zing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disability ident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1(1): 1-29.
- Song, Jin-yeong, Ahn, Gui-il and Moon, Jae-Woo. 2013. “The Influence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on Depress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uppor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3(2): 5-23.
- Yoo, Dong-chul, Kim, Dong-ki, Kim, Kyung-mee and Shin Yu-ri.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Activ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Social Exclu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ility Identit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1: 73-93.
- Yoon, Na-bee and Lee, So-hyun. 2007.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earing Impaired Adolescents’ Mentoring Experience and Ego-identity – The Emphasis on Special High School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Special Education Research*, 6(1): 71-96.